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

송 활 섭 의 원



“신탄진역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전략이 필요합니다.”

“특례사업이 무산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활용 방안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표도서관이
대덕구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신탄진은 350만 충청인의 생명수인 대청호가 있어 세종·충북을 아우르는 중부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거점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대전시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인 신탄진역은 1905년 개통되어 118년 동안 대전의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지금 신탄진역 주변은 급속하게 쇠퇴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도시철도 3호선 출발점으로 신탄진역이 과거 물류와 산업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신탄진역을 대중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전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더 편리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탄진 역세권의 체계적·전략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대전시에서 발표한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 5대 전략 중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교통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행과제로 경부선 신탄진역 철도거점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신탄진역을 충청권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철도망의 핵심 거점지로 조성함은 물론 물류 및 산업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신탄진 권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탄진 역세권 일대를 제가 직접 방문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시 07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08분 영상자료 종료)

2030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신탄진권역은 둔산지구와 원도심 등 2개 핵과 함께 남북 발전 축을 이루는 중요한 거점으로 공간구조가 설정되어 있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많은 공업지역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과 정책 추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물류 환경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물류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능과 시설을 확충하여 신탄진역이 미래를 선도하는 물류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한 신탄진역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10분 영상자료 종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탄진 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신탄진시장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대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신탄진전통시장은 5일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노점상들로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시장이 열리는 당일 거래비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오일장을 상설화하여 지역상인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신탄진역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사와 바로 연결되는 보행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탄진역에서 서광장으로 가려면 2층 대합실을 나와 외부에서 연결된 철재 육교를 불편하게 이용해야 하고 동광장과 서광장을 단절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탄진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탄진역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보행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신탄진역의 주요 쇠퇴 원인으로 KTX 무정차 문제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전문가 및 대전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진행했던 정책토론회에서 철도와 교통기능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역사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역 개설이 어렵다고 했지만 KTX 이용이 일상화된 지금은 그 개념이 바뀌어 오늘날 KTX는 과거의 새마을호와 같은 국민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신탄진역은 경부선과 호남선 그리고 전라선, 충북선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입니다. 이런 교통요충지로서 지리적 강점을 가진 신탄진역에 고속철도가 정차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은 물론 한국철도공단과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안한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전시만의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용지에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는 사유지가 많아 토지보상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은 미집행 도시공원 중 7개 공원에 대한 특례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정림동 월평근린공원과 용전근린공원, 문화동 문화공원은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목상근린공원, 행평근린공원, 가정동 매봉근린공원은 사업 추진에 실패했습니다.

일몰제를 앞두고 대전시는 특례사업 추진에 실패한 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공원 부지 12개를 지난해까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출된 녹지기금은 4,033억 원이고 이 중 74.4%에 해당하는 3,002억 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대전시의 현재 부채규모가 1조 원을 넘는데 이 중에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일몰제에 걸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시공원을 대전시가 막대한 부채 부담을 떠안고서 무리하게 매입한 점, 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고스란히 시민의 빚으로 남게 한 점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부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공원조성 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 남은 녹지기금만으로는 도시공원 조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대전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전광역시는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조성율이 2.22%로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입한 12개의 도시공원 중에는 면적이 작거나 공원으로서 재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토지자원 이용의 고도화와 장기미집행시설과 생활SOC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입체화 복합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도시공원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대전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 조성 관련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난립하는 오늘날 올바른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고 공공공간의 입지가 줄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상업시설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자료와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공장소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예술, 교육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대전시에도 총 590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이 중 공공도서관은 25개이고 대덕구와 중구는 각각 3개뿐입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공공도서관 수가 적습니다.

물론 대전시는 「도서관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1989년 12월에 개관한 한밭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복합문화공간 수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여 시장께서는 대전을 대표할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미군기지를 활용한 대구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이고, 광주광역시도 상무소각장 부지를 활용하여 광주대표도서관을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6년 이전을 앞둔 오정동 대덕구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혁신 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편익의 증진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도서관 입지로써 오정동 대덕구청 청사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의 사진은 인구 5만 명도 채 안 되는 다케오시 온천마을에 있는 다케오시립 도서관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일본의 중소도시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 이후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통해 지역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디자인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대덕구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 민간공원 조성 특례화사업, 대전 대표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지역균형발전과 신탄진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송활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신탄진전통시장 오일장 상설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신탄진전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오일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탄진 오일장은 사람들이 많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노점상 밀집 정기 장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탄진 오일장을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 허가 여부, 도로 점용에 따른 민원, 주변 상인들의 의견일치, 이해관계자의 의견일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 가능했을 때 입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대덕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탄진 시장의 많은 상인들, 관련하고 있는 시민들 또 대덕구의 의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신다면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오일장이 활성화되어서 신탄진지역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신탄진역 동광장과 서광장을 연결하는 보행로 설치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탄진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동광장과 서광장을 바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시에서 용역비를 지원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입안권자인 대덕구청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광장과 서광장을 바로 연결하는 보행로 조성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 되는 것에 대해서 대덕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한다면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신탄진역 무정차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전역, 서대전역, 신탄진역 등 총 5개의 철도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철도역은 위상, 기능, 위치적 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개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역은 고속철도보다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중심으로 특화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1단계와 2단계 충청권 내륙철도를 추진 중에 있어서 신탄진역이 물류 및 산업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이고요, 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는 신탄진에서 조치원역 그리고 충청내륙철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서산 공항에서 충남혁신도시, 공주, 세종, 대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탄진역은 광역철도의 중심 물류나 산업거점으로 재도약시킬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선택적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시가 부채 1조 원을 넘긴 주요 원인으로 볼 때 지역화폐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3,002억 원이 가장 큰 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로 인한 공원녹지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6년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사업제안을 수용하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가 노력해 왔습니다만 11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대전시의 결과는 용전공원, 월평공원, 정림지구, 문화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불가, 사업포기, 불수용 취소로 결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도안근린, 복용체육, 사정근린, 행평근린, 매봉근린, 월평근린, 목상근린은 사실상 불가, 사업포기, 불수용으로 취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민간에 맡겼으면 불필요한 녹지 부분은 개발해서 잘 가꾸고 나머지는 공원을 제대로 가꾸면서 시민들에게 대전시 혈세를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제대로 가꾸었다면,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당수 사업이 사업성 부족이나 환경, 교통, 경관 평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등 행정적·경제적 조건이 맞지 않아 좌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매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매입공원 면적은 대부분 보문산 권역인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공원과 월평, 매봉 공원입니다.

보문산 권역 재정매입공원을 연계 활용하여 보문산 프로젝트,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호동 제2수목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훼손지를 복원하고 도시숲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편의시설 등은 공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지의 복합화로 안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입지 복합화에 대해서는 2030대전공원녹지 기본 계획재정비를 통해 시민수요,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정동 대덕구청사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대표도서관 조성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동 1도서관을 최종 목표로 도서관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가양동에 조성하고 있는 동대전 시립도서관 또 관저동에 추진하고 있는 제3시립도서관 말고도 중앙도서관 격의 대표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도서관은 문화도시로의 대전시 위상을 높이고 완전히 시민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만으로도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하고 대표도서관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견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은 부지면적이 약 1만 5천 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도 2만 평방미터 내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350억 원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도서관 여건 분석, 시민들의 수요조사 등 최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덕구에 중앙도서관 격인 대표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또 대덕구청장님과 중앙도서관을 대덕구에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정동 대덕구청사 부지는 현재는 2026년 하반기 연축지구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오정동 도심 공동화도 예방하고 또 청사 부지를 주거시설이나 경제거점시설, 도서관 등의 생활SOC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을 현재로는 차질 없이 구상해서 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거기에 중앙도서관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대덕구 다른 장소에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것이냐는 조금 더 저희가 지리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 위치상 대덕구 발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에서 주거시설이나 경제거점 시설과 결합해서 도서관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중앙도서관 격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도서관만을 건설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도시 재생 혁신복합지구로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로 논의해서 대표 도서관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이 문제는 또다시 여러 가지 정책을 수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송활섭 의원님 포함한 대덕구의 많은 시의원님들, 대덕구청장님이 늘 걱정하는 것처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덕구에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배려 요청을 많이 하였고 지금 여러 가지 대덕구에 있는 한국타이어 화재 난 공장, 과연 신탄진지역이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은 대덕구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리틀야구돔구장도 대덕구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대덕구, 특히 신탄진지역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도시균형발전을 하는 정책으로 잘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도시 내 균형발전도 우리 도시가 가야 될 최종 목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